

여성의 효심에 관한 질적인 접근 분석

김 지 영[†] 최 상 진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한국의 전통적 효의식은 부모가 자식을 낳았다는 사실만으로 부모와 자식은 수직적 상하관계로 맺어지며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이광규, 1998). 이러한 관계는 가부장적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 효는 유교윤리를 바탕으로 한 가부장적 가족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지 통치 이념이었다(박병호, 1995). 가부장적, 유교적 상하관계를 전제로 한 전통적 효의식은 한국여성의 독특한 효윤리를 만들었다. 여성은 자라면서 친부모에게서 아들과는 다른 '딸로서의 효도'를 기대 받는다. 이는 여성이 결혼한 이후에는 딸의 의무보다는 시부모에 대해 며느리로서 효의 의무를 더욱 중시할 것을 시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국여성이 가지는 효도의 사회심리학적 특성을 대학생과 고등학생 피험자의 의식을 통해 분석했다.

주요어 : 효의식, 가부장제, 효의 의무, 여성의 효, 효윤리

[†] 교신저자 : 김지영, 경기대학교 교양학부 대우교수,
E-mail : email : jypsy@ intizen.com.

조선시대에 양반계층 여성들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봉제사의 의무를 담당하는 것이었다. 조선초기에는 여성들도 친정의 제사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조선 중, 후기로 오면서 외손봉사는 줄어들고 여성들은 시집의 제사를 대부분 4대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죽은 이의 생일날에 지내는 차례와 시제, 기제사를 모두 합하면 일년에 제사를 지내지 않는 달은 거의 없는 것이다. 부모에 대한 효도의 중요한 일부였던 제사의 대표자는 물론 아들이지만 실제적인 준비와 진행은 모두 여성의 몫이었으므로 조선시대 여성에 대한 규범서에는 반드시 봉제사에 관한 항목을 찾아볼 수 있다(이순구, 1999).

현대에도 성인인 아들이 부모에게 행하는 효도의 실질적인 수행자는 여성, 즉 며느리들이다. <장남과 그의 아내>라는 책을 쓴 김현주에 의하면 부모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받고 자란 장남의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바로 장남과 결혼하는 그의 아내라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만며느리들은 결혼과 동시에 시댁의 간섭과 요구에 시달리면서 갈등을 겪게 된다고 한다(한겨레, 2001년 7월 30일, 김현주 박사 장남부부의 현실해부). 한 연구에 의하면 배우자의 부모를 가족의 범위에 받아들이는가에 관해서 여성은 90%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은 78.9%가 배우자의 부모를 가족구성원으로 생각한다고 한다(변화순, 김현주, 1992).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이 시대에 대해 밀착된 반면, 한국남성은 여성에 비해 처가족에 대한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의식이나 밀착감이 여성보다 희박함을 시사한다. 이는 부계혈통이 우선시 되는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전통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나라에서 가부장 중심의 강력한 종법적 충효윤리가 국가적 통치이념으로 법규범화 된 것은 삼국시대에 들어서면서부터인 것으로 추정된다(박병호, 1995).

특히 17세기 중엽 이후에는 대중에 대해 유교적 윤리의식을 함양하여 통치를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이 한글창제와 같은 문화사업에 의해 열매를 맺어 서민층에서도 국가에서 정려(旌閭)를 내린 효자, 열녀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었다(권순형, 1996). 이러한 전통적 유교 윤리는 특히 여성에게 가혹했는데, 조선시대 수천 가지 여성의 불효에서 가장 큰 불효는 후사를 잇지 못하는 것이었고 다음으로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여성은 언제라도 시집에서 축출 가능했으며 시부모에게 거역하는 행위의 경우도 어느 정도까지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는 매우 자의적 해석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권순형, 1996).

조선후기의 강력한 유교적 윤리의식은 아직도 현대 한국사회 구성원들의 의식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한국인들은 세대 차에도 불구하고 청, 장년층의 70% 이상이 충과 효를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했다고 한다(Cha, 1994). 비록 현대로 오면서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되고 전통적 가치관이 변화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여성에 대한 가부장 중심의 유교적 윤리의식의 구축은 엄연한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유교적 윤리의 근간을 이루는 효가, 딸이나 며느리로서 여성들에게 요구하는 효도가 무엇인지 탐색적 연구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문헌에 나타난 한국의 전통적 효의식의 특질과 그 속에서 형성된 여성의 효의식이 가지는 독특성을 알아보려고 한다.

전통적 효의식과 여성의 효

한국인의 전통적 효의식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읍지(邑誌)라고 할

수 있는 <咸州志>는 조선중기에 편찬된 것으로 함안에 살던 사람들 중에서 과거에 훌륭한 행실을 하여 국가에서 정려(旌閭)를 받았거나 여러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은 사람들을 기록해 놓았는데 모두 37명의 인물이 기록되어있다. 이중 유일한 효녀인 심씨는 일찍이 과부가 되어 수절했으며 시부모와 친부모 모두를 극진히 섬겼는데 호랑이에게 잡힌 정청 아버지를 구했으며 70이 되어서 구걸을 하면서도 정성껏 제사를 지낸 점등이 칭송을 받았다. 효자들의 경우는 단지(斷指)를 해서 부모를 간호하거나 부모의 사후에 3년에서 6년의 여묘(廬墓)를 하는 효행이 주로 기록되어 있다(박주, 2000). 이러한 극단적 효행의 실천자들은 국가에서 내리는 정려를 받아 가문의 자랑이자, 그가 사는 고을의 자랑이 되었다.

한국인의 효행에 관한 최초의 경험적 연구라고 할 수 있는 김경동(1964)의 연구는 대학생들 대상으로 유교적 가치관을 조사한 것이었다. 연구 결과, 보은(報恩), 편하게 해드림, 행동조심, 부르심에 즉시 응함, 몸을 부모의 유체로 봄, 부모를 욕되지 않게 함 등의 항목에 대해 대학생들은 상당히 높은 가치를 둔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는 이를 통해 젊은이들이 행하는 효행이 과거와 같지 않을지라도 그 정신만은 전통적 효의식과 다르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전통적 효의식은 부자관계를 기본으로 한다. 즉 부(父)가 자(子)를 생산하였고 양육한 사람이라는 조건으로 자(子)는 부(父)에게 존경을 표하고 순종하며 효행해야 한다는 것이다(이광규, 1998) 이러한 부계 중심의 가족관계에서 한국적 효의식의 가장 큰 특징은 부모의 제일가는 은혜가 자식을 낳은 것이고, 자식은 부모와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상하관계, 주종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동몽선습(童蒙先習)에는 “부모가 비록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다 해도 자식은 효도를

아니하지 못한다”는 구절이 있다. 이는 부모가 자식에게 부모노릇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식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여야 함을 강조하는데, 서선희(1998)에 따르면 한국적 효의식의 특수성은 부모에 대한 공경의 근원이 자식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자체이지 출산 이후, 양육의 수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내훈(內訓)의 효친장(孝親章)에는 ‘부모가 나를 낳아주시고 대를 잇게 해주시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 수 없다’고 한 공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부모의 가장 큰 은혜가 생명을 준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전근대적 사회에서, 자식에 대해 부모 된 자는 절대적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다. 부모에 대한 불효의 경우, 중국에서는 거의 전시대에 걸쳐 부모가 자식의 불효를 고발하여 그를 벌주거나 죽여달라고 청구할 수 있었는데 이 때 불효의 개념은 상당히 모호하고 탄력적인 것으로 부모는 어떤 사소한 죄목으로라도 자식을 벌줄 수 있었다(박병호, 1996). Hwang(1999)에 의하면 기독교 문화에 사는 서구인과 달리 중국인들에게 있어 인간은, 죽은 다음에 천국이나 지옥으로 거처를 옮김으로써 영속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자신의 부모의 육체를 받아 대대로 이어져온 조상의 혈통을 이음으로써 영속하는 존재이다. 즉 나는 나의 조상, 부모의 확장자이고 나의 자식은 또한 확장된 나인 것이다. 유교의 효는 한 개인은 항상 그 부모에 의해 존재할 수 있다는 단순한 사실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들은 모두가 하나, 한 몸인 것이다. 그러나 구성원들의 가족 안에서 역할은 수직적이고 엄격히 구분되어 있는데 자식이 부모의 역할을 하거나 아내가 남편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다. 전통적 효의식에서 강조하는 부모에 대한 복종, 남편에 대한 순종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부계중심적 가족관계와 여성의 효의식

조선시대, 읍지(邑誌)에 기록을 남기거나 국가에서 정려(旌閭)를 내려 효자를 널리 알린 것은 대중을 교화하여 보다 원활한 통치를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 중국과 우리 나라의 전통사회를 특징지우던 효윤리가 최근의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쇠퇴되고 사회의 도덕적 타락에 대한 대안으로 '효도법'이라는 특별법의 제정까지 거론되게 되었으나 이는 가부장제적 봉건사회의 불평등, 권위주의적 잔재를 자유민주적 근대법안에서 추방하고자 한 그간의 법제 현대화와는 상반된다(박병호, 1995). 즉 효윤리의 강조에는 '평등'이라는 근대정신과 모순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한국의 부계중심적 가족관계는 세대, 성별, 연령 등의 자연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상하적, 주종적 관계로 대인관계를 이룬다(이광규, 1998). 따라서 조선시대에 출가한 여성의 가정내 지위는, 자식과 부모, 남성과 여성의 관계라는 겹겹의 차등에 의해 최저에 있었다. 한국의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효규범의 특징은 이러한 전통적 부계적 가족관계에서 남녀라는 성별차에 의해, 자식과 부모라는 세대차에서 기인한다. 여성은 딸로서 태어나면서부터 아들과는 다른 기대를 받으며 이미 '남의 집 식구'로 길러진다. 따라서 출가를 한 이후에는 며느리로서의 역할이 딸로서의 역할보다 더욱 중요하다. 한편, 최혜경과 김윤정(1997)은 노인부양이 부양자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국보건 연구원(1985)에 따르면 노인들의 취사, 목욕, 세면 등을 책임지는 신체적 공경의 담당자는 며느리(34.8%)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이웃이나 친지 등에 이어 아들, 배우자 순으로 나타났다(박갑선, 1998에서 재인용). 서구노인

들의 경우는 딸이 일차부양자가 되거나 아들에 비해 성인딸이 노인에게 더 많고 다양한 부양을 제공한다고 한다(Miler & Cafasso, 1992). 이에 반해 한국에서는 아직도 아들을 일차부양자로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며 아들이 일차부양자가 되는 경우, 실제로 노부모를 돌보는 사람은 며느리들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여성들의 '부모에 대한 효'에는 친부모에 대한 도리와 결혼 이후, 시부모에 대한 도리가 동시가 포함될 뿐 아니라 오히려 시부모에 대한 효가 친부모에 대한 효보다 더 뚜렷할 수 있는 전통적 가치관이 존재하다. 전업주부가 겪는 갈등요인에 관한 한 연구에서 피험자들은 제사, 시부모 생신, 시댁관련 여러 가지 행사 등에서 오는 친족관계의 역할갈등을 주요한 갈등중의 하나로 꼽았는데, 그 이유는 친족관계의 일은 가사나 자녀양육과 달리 주부의 의사대로 구성할 수 없고, 친정식구들과 달리 시댁식구들에게는 의무만을 행할 뿐 문제를 의논하거나 즐겁게 시간을 같이 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정서적 친밀감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한다(장혜경, 김영란, 2000). 또한 6명의 여성의 일상생활을 질적으로 분석한 윤택림(1995)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들은 모두 핵가족을 이루고 있었지만 이들 중 4명이 만며느리로서 주당 평균 15.5시간을 친족, 즉 시댁을 위해 보내는데 그러한 시간들은 시댁의 가족행사 참여, 정기적 방문, 휴가여행의 동행 등으로 쓰인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래는 여성들도 취업과 핵가족화 등의 사회적 변화와 육아, 살림 등을 이유로 기혼 여성들도 전적으로 시가에만 얽매이지 않고 친가부모와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광자(1988)에 의하면 기혼여성이 친정부모와 접촉하는 빈도는 시부모와의 접촉빈도보다 더 높으며 결혼이후에도 친정으로부터 지속적인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받는다고 한다. 또한 1999년

에 행한 노인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와 부양의식에 관한 연구를 보면 변화된 세대가 더욱 잘 드러나는데, 청소년들은 친조부모보다 외조부모와 훨씬 많은 접촉을 하고 친조부모보다 외조부모를 더 친밀하게 느끼는데, 그 이유는 부모가 친조부모와 소원하기 때문이라고 한다(이시형 1999). 이는 부모, 특히 엄마와 시조부모의 관계가 청소년에게도 영향을 준 때문일 것이다. 1985년 한국인구보건연구원 조사에서는 부모세대의 변화된 의식이 잘 나타난다. 부모의 봉양이 장남의 책임이라고 지적한 노인이 1985년에는 73.4%이나 1992년 한국노인문제 연구소 조사에서는 16.9%만이 장남책임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36.1%의 노인은 아들, 딸 모두의 책임이라는데 가장 많은 응답치를 나타낸다(전길양, 1993에서 재인용). 이는 이제 부모세대들도 자신의 아들과 딸에 대해 동등한 책임을 요구하며, 동시에 며느리들에게도 전통사회와 같이 시댁에의 헌신만을 기대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암시한다. 한편, 여성들도 과거와 같이 결혼을 했다고 해서 ‘출가의인(出嫁外人)’이 되어 친가와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길러주고, 결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원조를 아끼지 않는 친부모에 대해 감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호 도움을 주고받으며 밀착해 있다.

여기서 문제는, 현대의 여성들이 전통적 가부장적 윤리의식과 서구 자유주의의 영향을 동시에 받으며, 남성과는 구별되는 입장에 서있다는 것을 간과한 채, 많은 효연구나 부모 부양의 연구들이 남녀를 같은 집단으로 놓고 효의식의 변화나 그들의 부모에 대한 생각을 질문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그들에게 부양의식에 관해 질문할 경우 한국사회에서 기혼 여성들이 염두에 두는 것이 시부모인지 친부모인지 대부분의 통계 자료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다. 현재, 한국의 효규범은 전통적 유교윤리와 현실적 변화 사이에서

정립되지 못한 채, 막연히 ‘관념속의 효’에만 집착해 있다. 때문에 심리학적 측면에서 사회구성원들이 생각하는 여성의 효에 관련된 의식을 알아보는 작업은, 효의 전근대성을 탈피하여, 효를 보다 인간적인 관계맺음을 위한 새로운 규범으로 변화시켜 나가기 위한 하나의 시도가 될 것이다.

방 법

서울시내 소재 대학교의 남, 녀 학생 각 25명, 총 50명의 대학생과 경기도 소재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 남, 녀 각 30명, 총 60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유기술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남자대 학생의 나이는 만19세에서 25세이고 여대생의 나이는 만 19세에서 23세였다. 고등학생들의 나이는 남, 녀 동일하게 만 17세에서 18세에 분포되어 있다. 설문지 결과의 분석은 심리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3명이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분석했다. 1) 응답내용을 문항번호에 따라 모두 기록한다. 2) 3명은 기록된 피험자의 응답을 같은 단어의 쓰임에 따라 묶는 1차 분석을 실시한 후, 모여서 분석결과를 대조하고 잘못된 부분이나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 토론을 통해 분석결과를 통일한다. 이러한 과정은 분석 내용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일 수 있는 과정이다. 3) 통일된 1차 분석결과를 토대로 3명의 대학원생은 보다 상위의, 추상적인 범주로 묶는 내용분석을 각자 한 이후에, 만나서 서로 다른 부분을 비교하고, 토론을 통해 2차 분석을 마무리한다. 4) 1, 2차 과정을 통해 완성된 내용분석을 한 사람이 정리하여 나머지 두 사람과 같이 점검하면서 잘못된 부분이나 수정할 부분은 없는지 최종적으로 결정한 후, 내용분석을 마친다(Denzin &

Lincoln, 1994; Potter & Levine-Donnerstein, 1999; 홍성열, 2001).

결 과

고등학생과 대학생간에는 두드러진 응답의 차이가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연령차가 많지 않은 때문으로 추측된다. 먼저 장한 며느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첫 번째 질문에 대해, 그들을 장하고 대단하다고 여긴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응답을 따로 분석하지 못했으므로 그러한 응답을 한 사람이 주로 남학생인지 알 수 없으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며느리의 행동에 대해 '친부모에게는 잘하나?', '답답하다', '웃긴다' 등의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낸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3분의 1정도이고 나머지 반수이상의 응답자들이 훌륭하고 본받을 만하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대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생각과 감정간에 미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장한 며느리에 대한 생각은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응답이 다소 많았지만 그에 대한 감정은 '불쌍하다', '답답하다'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 응답의 반수를 차지했다. 기타 응답도 '자기 감정이 없는 것 같다', '짜증난다' 등과 같은 부정적인 내용이었다.

장한 며느리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통해 젊은 세대들이 어려운 가운데 시부모를 모시며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는 전통적인 며느리상에 대해서, 이를 한편에서는 인정하면서도 한편에서는 단순히 '특별한 경우'로 여기거나 친부모와 시부모가 동등하게 대우받지 못하는 것에 불만을 느끼는 탈전통적 가치관을 내비치고 있다(표 2 참조). '자신의 친부모에게도 그렇게 잘 했을까'

'왜 장한 사위상은 없나?' 등의 부정적인 생각은 결혼하면 시부모를 친부모와 같거나 오히려 친부모보다 더 위해야 한다는 전통적 가치관에 대한 불만과 처가와 시가가 동등히 대우받아야 한다는 젊은 세대의 의식을 반영한다.

남녀의 효도차이를 묻는 두 번째 질문에서 고등학생은 '다르지 않다'와 '다르다'는 응답이 거의 반반인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생의 경우에는 다르지 않다,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이 약간 우세했다. 이는 청소년기에 전통적인 성역할 의식이 강하고 연령에 따라 변화된다(Hetherington & Parke, 1993)는 연구결과에 비추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남녀의 효도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은 남자의 효도를 주로 전통적 역할수행, 즉 제사, 가문의 대 잇기, 부모 모시기 등으로 꼽았다(표 3 참조). 이는 표 4와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딸의 효도와 아들의 효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다음 질문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아들의 효도에 비해 딸의 효도는 시집가서 잘사는 것, 안부전화나, 방문 등의 정서적, 정신적 효도라고 응답하고 있다. 남성들은 주로 부모의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부양을 책임지고 여성들은 일단 시집가면 시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하므로 친정부모의 일차적 부양자가 될 수 없고 다만 마음으로만 친부모를 생각하는 것이 남녀의 효도라는 생각은 청소년 때부터 어느 정도 내재화 된 것으로 보인다. 즉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은 부모나 사회가 남녀에게 기대하는 효의 무의 차이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기도 하지만 그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장래의 효행동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추측되고, 이 질문은 부모나 주위의 사회적 기대에 대해 질문한 것이므로 부모세대가 여전히 남녀차별적인 교육과 기대를 자식세대들에게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신문이나 TV에 시부모를 잘 봉양해서 장한 며느리상을 받는 여성들에 대한 생각

범주 및 항목(고등학생)	빈도 (%)	범주 및 항목(대학생)	빈도 (%)
1. 대단하다 1) 대단하고 위대하다 2) 참 대견하다 3) 훌륭하다.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쉬운일이 아닐텐데	20(37.04)	1. 대단하다 1) 대단하다 2) 자기 부모님도 잘 모시기 힘든데 대단하다 3) 참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요즘엔 보기 드무니까	13(34.21)
2. 잘했다고 생각한다 1) 잘한다. 친정엄마한테도 잘해줘야지 2) 착하구나	5(9.25)	2. 별의 별 상이 다 있네 웃기는 세상이야 1) 유난스럽다 2) 불필요하거나 거추장스러운 일 같다	4(10.53)
3. 자신의 부모에게는 효도를 잘하나? 1) 시부모 만큼 자신의 부모에게 효도를 잘 하나? 2) 자신의 부모들에게 우선 공경하여 효도상을 받는 것이 옳다.	5(9.26)	3. 자기 친부모께도 그렇게 잘 할까? 의문이 든다 1) 정말 장하다는 생각과 함께 친정어머니께도 그만큼 해드렸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2) 과연 진짜 그렇게 잘 했을까?	3(7.89)
4. 본받고 싶다 1) 본받아야겠다 2)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나도 시어머니를 잘 모시고 싶다는 생각...	4(7.41)	4. 착한 며느리들이구나 1) 착하다 2) 심성이 착한 것 같다	3(7.89)
5. 짜증난다 1) 답답하다 2) 왜 자신의 부모를 그렇게 모셔도 그런거 안주면서 시부모를 모시면 그런거 줘니까?	4(7.41)	5. 본받아야겠다 1) 본받을 만하다 2)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일이라 생각한다	3(7.89)
6. 아무 생각없다 1) 별 특별한 생각은 없다 그냥 그런가 보다.. 2) 별생각 없다	4(7.41)	6. 아무 생각 없음 1) 아무 생각없다	2(5.26)
7. 부정적인 생각 1) 그래서 어찌라고.. 2) 어떻게 했을까? 3) 얼마 받았을까?	3(5.56)	7. 마땅한 일이라 생각한다 나와 비교해 보게 된다 1) 상을 받아 마땅하다	2(5.26)
8. 신기하다 1) 신기하다 나도 해보고 싶다	3(5.56)	8. 저 사람은 행복하게 사는 것일까 시부모 봉양하는 것 귀찮지 않나 1) 불쌍 억제된 내재적 감정 불행	2(5.26)
9. 왜 장한 사위상은 없는가? 1) 근데 왜 장모님을 잘모시는 장한 사위상은 없나?	3(5.56)	9. 꼭 봉양해야만 장한 며느리상을 받는건 아니다 1) 잘 봉양한다는 것만이 효도일까?	2(5.26)
10. 기타 1) 대단하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은? 2) 진절까	3(5.56)	10. 기타 1) 희생적이다 2) 잘 봉양한다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3) 시어머니도 한편으로 나의 부모님인데 당연한 일인데도 상을 받는 것을 보면 사회가 차가워진 것 같다	4(10.53)
총 계	54(100.00)	총 계	38(100.00)

표 2. 신문이나 TV에 시부모를 잘 봉양해서 장한 며느리상을 받는 여성들에 대한 감정

범주 및 항목(고등학생)	빈도 (%)	범주 및 항목(대학생)	빈도 (%)
1. 비판적, 부정적 1) 과연... 2) 자기 부모한테도 잘할까 3) 근데 저 사정기준은 무엇이지? 효도가 눈에 보이는 것인가?	8(17.78)	1. 흐뭇하다 1) 흐뭇 2) 놀라고 감동한다	6(15.79)
2. 대단하다 1) 대단하긴 대단하다 2) 잘했구나 3) 존경스럽다	8(17.78)	2. 자신의 삶을 얼마나 많이 희생했을까 좀 불쌍함 1) 힘들게 살아왔겠다고 느낌 2) 본받아야 할 것 같지만 한편으론 힘들 것 같다	6(15.79)
3. 뿌듯하다 1) 기쁘다 이런사람들이 있어서 2) 뿌듯하고 감동적이다	5(11.11)	3. 각박해진 세상이 안타깝다 1) 그 사람들은 대단하고 존경스럽다 그러나 그런 것을 보도하는 매스미디어나 그렇게 대단한 일이 된 사회가 한심스럽다 2)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4(10.53)
4. 짜증난다 1) 싫다 짜증나 2) 짜증날것 같다 독하다	5(11.11)	4. 아무 감정 없다 1) 다른 느낌은 없다 2) 의문만 있을뿐 다른 특별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	3(7.89)
5. 나도 그렇게 할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부끄러움 1) 나도 또한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부끄러움 2) 난 지정도까지 못할 것 같다 3) 내가 부족하고 불효하는 것 같아서 가슴에 쫓린다	5(11.11)	5. 놀라운 심정과 함께 친정어머니께도 그렇게 했을까 하는 의심이 든다 1) 약간은 억울하다 남편은 친정부모 잘모셔 받는 상도 없고 너무 여성에게만 그러길 강요하는건 아닌지	2(5.26)
6. 착하다 1) 착하구나	4(8.89)	6. 세상이 변했구나 1) 세상이 무섭구나...	2(5.26)
7. 본받고 싶다 1) 나도 그렇게 해야지 ... 2) 나도 잘해야지	4(8.89)	7. 존경스러움 1) 존경하고플 때가 있다. 대단하며 본받고 싶다 따뜻해 지는 것 같다	2(5.26)
8. 별 감정 없다 1) 별 생각이 없다	4(8.89)	8. 나도 가능한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멋진 여성이다 1) 나도 결혼을 하게 되면 시부모를 잘 봉양해야겠다	2(5.26)
9. 기타 1) 교부갈등이 많다고 하는데 시부모가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고 며느리가 시부모를 친정 부모처럼 대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2(4.44)	9. 답답하다 1) 가슴이 터질 듯 하다	2(5.26)
		10. 기타 1) 자기 감정이 없는 것 같다 나라면 못 그럴 것 같다 2) 부럽기도 하지만 부모님 걱정도 3) 짜증난다	6(15.79)
총 계	45(100.00)	총 계	38(100.00)

표 3. 부모가 아들과 딸에 대해 기대하는 효도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이유

범주 및 항목(고등학생)	빈도 (%)	범주 및 항목(대학생)	빈도 (%)
1. 같다 1) 같다고 생각한다 2) 딸의 효도와 아들의 효도가 왜 다르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16(45.71)	1.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음 1) 다르지 않다 2) 나의 아버지는 아들, 딸 구별을 별로 안하는 것 같다 3) 왜 그런지 모르겠다 똑같은 부모님인데 속상하다	19(67.86)
2. 남아선호 때문에 1) 가끔 아들을 바라시니까 2) 남녀 차별 3) 전통적인 남아선호 사상	7(20.00)	2. 아들이 제사를 지내오는 우리사회의 유교적 관행 1) 한국에서는 유교사상 때문에 다르게 키우기 때문에 좀 다르지 않겠는가 2) 우리사회의 유교적 풍습 때문에	4(14.29)
3. 전통적인 생각 때문에 1) 전통적인 사고방식 2) 틀에 박힌 전통의식 때문에	4(11.43)	3. 아들은 함께 살아야 함으로 1) 전부터 아들은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 생각이 깊다	2(7.14)
4. 아들이 대를 잇기 때문에 1) 아들은 대를 이어가고 딸은 남의 집의 대를 잇기 때문에 2) 우리나라 가계제도 남자만이 대를 잇는다 생각하는 것	3(8.57)	4. 기타 1) 부모님이 아들과 딸에게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 2) 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3) 남의 식구가 된다는 생각대로 시집식구들에게 적응해서 잘 사는 것이 딸의 효도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3(10.71)
5. 부모를 모시기 때문에 1) 아들은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2) 제사 때문이 아닐까?	2(5.71)		
6. 기타 1) 그냥 그럴꺼 같다 2) 울집은 아들효도는 바라지 않음 기대않함	3(8.57)		
총 계	35(100.00)	총 계	28(100.00)

표 4. 부모가 기대하는 딸의 효도

범주 및 항목(고등학생)	빈도 (%)	범주 및 항목(대학생)	빈도 (%)
1. 시집가서 잘 사는것 1) 시집 잘 가는 것 2) 시집가서 잘사는 것 그러면서 부모님께 안부를 묻는 것 3) 친정오지 않고 잘 사는것	6(40.00)	1. 결혼 잘해서 남편과 가정 잘 돌보기 1) 시집 잘 가는 것 2)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 3) 결혼해서 큰 다들없이 잘 살아주기	6(54.55)
2. 마음과 감정적 이해 1) 감정적으로 이해해 드리고 위해 드리는 것 2) 마음적인 효도 3) 정신적	4(26.67)	2. 기타 1) 가능한한 자주 찾아뵙기라도 바란다 2)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효도 3) 시댁과 친정에 고루 효도 할수 있도록	5(45.45)
3. 안부전화와 방문 1) 시집가서 가끔 들르는 정도 2) 자주 안부전화 하고 집에 들린다 3) 자잘한 것들...	3(20.00)		
4. 기타 1) 딸이 효도하면 시부모가 난리칠거다 2) 무지하게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할 것임 아주 잘할 것임	2(13.33)		
총 계	15(100.00)	총 계	11(100.00)

표 5. 부모가 기대하는 아들의 효도

범주 및 항목(고등학생)	빈도 (%)	범주 및 항목(대학생)	빈도 (%)
1. 경제적인 것 1) 경제적 2) 마음과 물질적 효도 3) 물질적이고 좀 든든한 버팀목이길 바라실 것	5(27.78)	1. 장성하여 자신의 일 성공하여 부모님 모시기 1) 부모 모시고 사는 것 2) 부모를 모셔야 하고 제사를 주관해야 한다 3) 부모의 노후를 보살피 주기를 바란다	4(40.00)
2. 모시는 것 1) 같이 모시는 정도 2) 제사 부모님 부양	5(27.78)	2. 행동적인 효도 즉 진심에서 우러나온 효도라 생각하시나 보다 1)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효도에 물질적인 것도 강하게 요구	2(20.00)
3. 부모님께 잘 하는 배우자를 선택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 1) 부모님 집에 자주 들리고 며느리가 잘 하도록 부탁한다 2) 부모님을 섬겨야 하는 입장이므로 배우자 또한 그것에 맞추어야 한다	3(16.67)	3. 결혼해서 큰 다들없이 잘 살아주기 1) 오빠에게는 예쁜 손주를 빨리 낳아서 안겨주고 새언니하고 안정되고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 같다	2(20.00)
4. 번성 1) 번성 2) 아들 딸 입신양명	2(11.11)	4. 기타 1) 아내를 도와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2) 돈 많이 버는 것	2(20.00)
5. 믿음이 가는 생활을 하는 것 1) 믿음이 가는 생활을 하는 것	1(5.56)		
6. 기타 1) 모르겠다 2) 아들이 효도하면 착하다고 한다(문제 있다)	2(11.11)		
총 계	18(100.00)	총 계	10(100.00)

부모를 누가 모셔야 되는가는 질문에 대해서는 앞의 응답내용과 모순된 점이 있는데, 앞의 응답에서 부모를 모시고 부모의 경제적, 물질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것이 아들의 효라는 응답대로라면 부모 모시기에도 아들이나 장남이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지만 능력이 되는 사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이다. 그러나 사회구조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취업과 승진 등에 있어 유리한 한국사회에서 경제적인 능력 순서라함은 무의식적으로 아들을 가리키는 말일 수도 있다. 또한 앞의 질문들은 남녀의 효도에 있어 부모의 기대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었다면 부모 모시기에 대해서는 자식들 스스로의 생각을 질문하는 것이므로 보다 탈전통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보인다.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부모 모시기의 응답내용을 살펴보면 정성이나 마음보다는 '경제적 사정이 허락해야 할 수 있는 일'이라는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사고도 엿보이는데 '모시고 싶은 사람이 모신다' '부모님이 원하는 사람'이라는 나머지 응답들도 그 이면에는 부모부양을 더 이상 당위적 의무나 도리로서가 아닌 자식의 의중이나 당시에 처한 형편에 따라야 한다는 자기중심성도 엿보인다. 그러나 고등학생의 '아무나 모셔도 상관없다' '모시고 싶은 사람' '모두 다같이'라는 의견과 대학생의 '부모님이 같이 살기를 원하는 사람' '자식이면 누구나 모셔야 된다'는 의견 등은 부모부양에 있어서는 남녀나 장, 차남의 구분없이 동일하게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식의 반영으로 볼 수 있다.

어머니와 부인의 의견이 대립된 상황에서 남자가 취할 태도를 묻는 질문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은 두 번째 범주이다. 두 번째 범주는 일단 시어머니편을 들고 뒤에서 부인을 위로 한다는 것이다. 이는 부모에 대한 공경과 부인에 대한

애정 사이에서 어느 쪽도 서운하게 하고싶지 않은 의도가 잘 드러나는 것으로, 절반 이상이 응답한 '중립적 태도'에 비해 적극적인 대처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기혼남성들은 고부갈등의 중간에서 자주 난처한 상황을 경험하는데 고부갈등은 여성 뿐 아니라 남편이자 아들의 입장인 남성들에게도 큰 고통을 준다고 할 수 있다 (표 7 참조).

다음으로 제사가 가족이라는 하나의 집단이나 가족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해 알아보았는데, 표 8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젊은 세대들은 제사에 대해 제사의 본래 기능인 조상에 대한 숭배나 부모에 대한 효보다도 가족, 친척간에 정을 나눌 수 있게 하는 것을 가장 긍정적인 기능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바쁜 현대인들에게 제사라는 의식이 가족회합의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젊은 세대들은 제사를 가족모임의 일종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 했다. 반면 제사의 가장 부정적인 기능으로 여성의 고된 노동과 제사의 허폐허식성을 들고 있다. 제사의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에 대한 이러한 결과들은 한국인이 다양한 모임을 통해 친족간의 친목을 다질 기회가 많지 않은 가운데서 그나마 제사가 그 기능을 수행하며 그것이 젊은 세대에까지도 인정되어 비교적 공고히 이어질 관습임을 시사한다. 제사의 부정적인 기능으로 단연 여성의 고된 노동이 꼽힌 것은 아직도 제사의 준비만큼은 남성의 노동력을 빌린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전적으로 여성의 의무로 인식되는 영역임을 알 수 있다.

표 6. 당신은 부모님을 자식 중에서 누가 모셔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범주 및 항목(고등학생)	빈도 (%)	범주 및 항목(대학생)	빈도 (%)
1. 능력이 되는 사람 1) 경제적 능력이 되는 사람 2) 모실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이 모셔야 한다 3) 아무나 형편이 되는 대로	16(34.78)	1. 시간적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는 쪽 1) 아무나 능력이 되는 사람 2) 따로 사는 것도 좋지만 모셔야 한다면 능력이 좀더 괜찮은 쪽에서 아들딸 구별없이... 3) 경제적 부양능력을 지니고 희망하는 자 부모님이 원하는 자식	19(54.29)
2. 아무나 모셔도 상관없다 1) 그냥 아무나 2) 누가 모시건 무슨 상관 3) 꼭 장남이 모시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9(19.57)	2. 부모님이 같이 살기 원하시는 사람 1) 부모님이 함께 있고 싶어하는 자식 고착적일 이유가 없다 2) 부모님께서 제일 편하게 생각하는 자식	5(14.29)
3. 모시고 싶은 사람 1) 모시고 싶은 사람 2) 진정으로 모시고 싶은 사람	6(13.04)	3. 부모님끼리 사시는 편이 1) 부모님끼리 사는게 이상적, 가족 모두가 부양 2) 가급적이면 부모님끼리의 노후, 그제 안되면 사정이 되는 방향으로	3(8.57)
4. 모두 다 같이 1) 다같이 2) 모두다	5(10.87)	4. 자식이면 누구나 모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1) 누가 모셔야 된다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다 2) 장남이 모셔야 한다는 생각에는 반대다 그리고 아들, 딸 누구나 모실수 있다고 생각한다	3(8.57)
5. 아들 1) 아들	4(8.70)	5. 모시고 싶은 사람 1) 부모님을 모실 생각이 있는 자식	2(5.71)
6.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1) 누구나 모셔도 되고 원하시는 곳에 머물게 한다 2)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4(8.70)	6. 기타 1) 둘다 의논해서 결정 2) 장남인 첫째가 모셔야 된다고 생각한다... 3) 내가 모시고 싶다 아니면 실버타운에서 두분의 자립된 생활을 누리게 하고 싶다	3(8.57)
7. 딸 1) 내가 딸이...	1(2.17)		
8. 내가 1) 글썄 내가...	1(2.17)		
총 계	46(100.00)	총 계	35(100.00)

표 7. 당신은 부인과 시어머니의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에서 남자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범주 및 항목(고등학생)	빈도(%)	범주 및 항목(대학생)	빈도(%)
1. 중립적 1) 중립적인 태도 시어머니와 부인 둘 다를 포용하고 해결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 2) 모두 존중 3) 둘과의 사이가 원만하게 되도록 중재하는 역할	21(50.00)	1.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 1) 두사람이 해결하도록 문제의 전면에 나서지 말아야 한다. 이면에서 긍정적 해결을 위한 노력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2) 중립적 자세 3) 애매모호한 태도	16(48.48)
2. 시어머니와 부인이 같이 있을때는 시어머니 부인과 단 둘이 있을때는 부인 1) 때에 따라 틀리다 때론 중립 2) 부인이 옳은 경우 걸으론 시어머니 의견에 찬성해드리고 나중에 부인에게 사과하고 부인을 도와준다	9(21.43)	2. 시어머니의 편을 들고 뒤에서는 아내를 위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1) 조용한 집안 유지만 가능하다면 어느 한쪽 편을 일시적으로 들어줘도 된다고 본다 2) 앞에서는 시어머니 편을 들어주고 뒤에서 부인을 이해시켜준다 3) 일단 시어머니 편들고 나중에 아내에게 양해 구해야 된다고 생각 그리고 내가 옳은 일을 따질 것	9(27.27)
3. 옳다고 생각하는 쪽 1) 객관적으로 옳은 쪽 하지만 시어머니편을 자꾸들면 짜증날 것같다 안살고 만다 2) 객관적인 입장에서 상황판단을 하여 올바른 쪽으로 대립되는 의견을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6(14.29)	3. 상황에 따라 틀리다 명백한 이유와 타당성이 있는 쪽으로 1) 옳다고 생각하는 편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시어머니편 후에 부인 위로 이해시킨다 2) 자신이 생각해서 옳은 의견 3) 물론 부인 의견에 동의하면 좋겠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남자가 생각해서 더 현명한 쪽으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6(18.18)
4. 부인편 1) 내편 들어줘야지 당연히 안그럼 이혼이다 2) 부인편	5(11.90)	4. 기타 1) 현명히 서로의 입장을 이해시킨다 2) 시어머니	2(6.06)
5. 어머니편 1) 시어머니의 뜻을 따라야 한다	1(2.38)		
총 계	42(100.00)	총 계	33(100.00)

표 8. 제사의 긍정적인 기능

범주 및 항목(고등학생)	빈도(%)	범주 및 항목(대학생)	빈도(%)
1. 가족의 화합 1) 가족간의 유대감 강화 2) 친척들간의 친목 도모 3) 효의식을 기르고 가족간의 화합도 도모한다	17(44.74)	1.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다 1) 가족간 화합 2) 가족 모임 조상 생각 3) 가족공동체의식 뿌리의식 정교류	16(47.06)
2. 조상과 나에 대해 생각할 기회 제공 1) 조상에 대한 경건한 마음 2) 조상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다 3) 자신의 뿌리 인식	9(23.68)	2. 조상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게 할 수도 있다 1) 친척들이 모여 돌아가신 어른을 생각하는 자리이다 2) 조상인에 대한 예의이고 또 내 조상에 대해 알 수 있다 3)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준다	14(41.18)
3. 전통의 계승 1) 가족의 질서 유지 2) 오랜전통을 이어간다 3) 조상을 모시고 효를 행한다	8(21.05)	3. 뿌리를 알 수 있는 것 1) 아이들에게 보지 못한 조상님들을 알게 하는 기회 2) 자신의 뿌리를 찾고 감사드리는 것은 당연 3) 제사를 지냄으로 나의 뿌리확인 제사를 하는 날은 가족들이 모이므로 소속감 확인	4(11.76)
4. 조상에 대한 감사 1) 조상에 대한 감사 2) 한번쯤은 자신이 그 자리에 설수 있도록 해준 조상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좋다	2(5.26)		
5. 기타 1) 없다 2) 난 종교를 가지고 있다 걸치레가 있을 수 있지만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좋은 듯	2(5.26)		
총 계	38(100.00)	총 계	34(100.00)

표 9. 제사의 부정적인 기능

범주 및 항목(고등학생)	빈도(%)	범주 및 항목(대학생)	빈도(%)
1. 여자만 고생한다 1) 여성들의 지나친 노동 2) 며느리가 너무 힘들다 3) 남녀차별 남자중심적 제도	15(51.72)	1. 너무 형식적일 수 있다 1) 자칫 허례허식적일 수 있다 2) 걸치레 3) 의미보다 의례중시 경제적 부담 비합리성	15(34.09)
2. 번거롭다 1) 거주장스럽다 음식이며 의식이며 2) 번거롭고 차리는 음식도 복잡하다 3) 음식낭비만 있다	9(31.03)	2. 여자들은 괴롭도록 힘들다 1) 여자만이 일을 많이 하는 것 2) 여성들의 과다 노동 지극히 남성중심적 3) 남녀차별이 이루어진다	13(29.55)
3. 종교적인 마찰 1) 우상숭배 의미가 없다 2) 종교적으로 다를 수도 있고 또한 경제적 으로 안되는 집은 너무 부담이 될 것이다	3(10.34)	3. 경제적 부담이 클 수 있다 1) 사치스럽게 느껴지기도 한다 지나치게 형식적이다 2) 낭비인 것 같다 조금 더 간소하면 좋겠다 3) 쓸데없이 지나치게 음식준비하는데 많은 돈이 든다	6(13.63)
4. 부정적인 기능이 없다 1) 없다	1(3.45)	4. 제사를 지내기 위한 준비가 복잡하다 때로는 제사로 인해 가족간에 갈등이 생길 때 1) 가족이 많은 경우 누가 제사를 모시느냐에 따라 재산싸움 즉 갈등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4(9.09)
5. 기타 1) 과거 지향적인 의식을 가질 수 있다	1(3.45)	5. 시간 부족 1)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에는 이동에 따른 번거러움이 있을 수 있다	2(4.55)
		6. 기타 1) 딸은 친정제사는 못지내고 시댁제사만 지낸다 2) 비 미래지향적이다 3) 비과학적이다	4(9.09)
총 계	29(100.00)	총 계	44(100.00)

논의 및 결론

과거나 현재나 여성들은 가정내 역할 속에서 노부모의 생활을 돌보고 효를 실천해 온 '실천자'이기는 하나, 능동적으로 실천하고 이에 만족을 느끼는 효의 '주체'는 되지 못하고 있다. 이광규(1998)는 고부갈등을 부계가족사회인 한국가정에서 혼입한 두 여자가 벌이는 성취지위의 경쟁으로 보고 있다. 즉 여자가 결혼을 해서 부계가족에 혼입이 되면 이전의 과거는 모두 백지화되고 그 가족내에서 최저의 지위로 다시 출발하게 되는데 혼입한 여자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시가에 공헌했고, 시부모에게 순종했으며, 아들을 출산했는지 등에 따라 새로운 성취지위가 부여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국여성의 가정내 지위에 의해 여성의 효는 남성의 효와 다른 특수성을 가지게 된다.

한국의 남아선호사상은 '아들이 있으면 든든하다', '아들은 집안의 울타리다' 등의 일상적인 말들로 표현되는데 이는 아들이 부모가 의탁할 수 있는 일차적 부양자로 간주됨을 뜻하고, 이에 반해 딸은 결혼을 해서 친정부모에 대해 잘해주는 것이 의무라기 보다는 정의 표현으로 간주되며 그것을 소홀히 하더라도 비난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문옥표, 1996). 본 연구는, 이러한 전통적인 여성의 효의식이 가지는 특성들과 현대의 변화된 효의식을 통해 한국 여성의 효도에 관한 사회심리학적 측면을 실증적으로 알아보고자 시도되었다.

먼저, 시부모를 잘 봉양하여 장한 며느리상을 받은 여성들에 대한 피험자들의 생각은 반수이상 '대단하다', '잘했다고 생각한다' 등의 긍정적인 응답이었다. 이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에 있어 큰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나머지 응답의 내용이나 감정을 묻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

들은 냉소적인 반응도 많았는데 시부모에 비해 친부모에게도 것처럼 잘하는지, 장한 사위상은 왜 없는지, 등의 응답을 통해 과거와는 달라진 의식을 읽을 수 있었다. 과거와 같이 시부모에 대한 효가 칭송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왜 남성과 달리 여성만이 시부모에 대해 헌신해야 하는가와 같은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는 것이다.

젊은 세대는 부모세대의 아들과 딸에 대한 차별적 기대를 인지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부모세대의 사고에 수긍하고 있었다. 즉, 아직도 한국사회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본 아들은 부모를 부양하고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지는 일차적 부양자이지만 딸은 정서적, 심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친부모에 있어서는 이차적 부양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응답한 것은 그러한 차별적 기대가 부모의 의식적, 무의식적 언행, 사회적 환경에서 어느 정도 자신의 의식에 깊이 내재된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며느리의 역할이나 부모부양 등에 관해 과거와 달리 여성, 혹은 장남의 일방적인 책임이나 희생을 옳지 않다고 느끼며, 또한 마음이나 도리로서가 아니라 경제적 여건이 허락해야만 부모를 모실 수 있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계혈통 중심의 조상숭배를 위한 제사가 가진 강력한 기능은 친족간의 회합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오히려 제사 이외는 별다른 회합이 없다는 것으로, 약화되어가는 친족간의 유대를 반증한다고도 할 수 있다. 제사의 가장 부정적 기능으로 여성의 고된 노동이 많은 응답을 차지하는 것은 집안에서의 가사일에는 남녀의 분담이 가능하지만, 아직도 제사준비라든가 집안의 어른이 함께 하는 자리에서는 남성이 여성을 도와 부엌일을 한다는 것이 요원한 현실임을 알 수 있다.

한국여성은 딸로 태어나 결혼해서는 '남의 집

며느리'가 된다. 며느리가 된 여성은 자신의 친 부모보다 시부모를 돌보고 책임져야하는 의무를 지게되고, 친부모에 대한 효에는 결혼이후, 시댁 식구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포함된다. 즉 한국의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효도에서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부모에 대한 효행과 스스로의 결혼생활의 안착이다. 이는 친정부모의 바람이자 여성을 둘러싼 도덕적 규범이기도 하다. 그러나 오늘날의 부모자식관계의 상호작용은 당위적 도리에 따라 움직이기보다는 전생애를 통한 상호적 교환의 일종으로 인식되기도 한다(Ikkink, Tilburg & Knipscheer, 1999). 이러한 교환관계의 차원에서 본다면 여성도 자신을 길러주고 결혼 이후에도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친부모에 대해 보은의 의무감을 느끼고 그러한 의무감은 과거와 같이 '결혼해서 잘 사는' 정도의 소극성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도움과 원조를 제공하고자 할 것이다. 이는 반대급부로 시댁에 대한 도리의 당위성을 희석시킬 수 있다.

안호영(1996)은 전통-근대라는 두 개의 가족원리가 서로 혼재하는 현재의 가족의식에 있어 가족문제를 '전통'이라고 흔히 일컬어지는 조선후기의 부계가족 가치관으로의 회귀만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시각을 비판하고 있다. 그는 규범과 행동의 불일치에서 오는 가족문제의 이중성을 철저히 인식하고 가족간의 평등과 다양성, 전문성 등을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새로운 가족규범을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우리가 효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해 커다란 함의를 제공한다.

가족의식과 마찬가지로 규범과 행동이 불일치되고, 전통과 근대가 혼재된 효의식을, 실제 그대로 인정하고, 과거 유교적 사상을 토대로 강조되었던 남성위주의 부계적 효의식에서 탈피하여 남성과 여성의 상호 평등한 관계를 바탕으로 한

효규범을 재정립하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특히 남녀 평등의 효규범의 창조는 사회적으로 남자와 여자에 대한 동등한 기회제공, 가정 내 아들과 딸에 대한 공평한 자원분배 및 부모 세대의 남아선호 지양 등이 제반조건으로 확립되어야만 가능하다.

본 연구는 여성의 효도에 관해 현재하는 사회구성원들의 의식을 밝히고자 했으나, 고등학생과 대학생이라는 청소년층의 피험자만을 대상으로 한 점과 연구방법이 자유기술식이라는 단일한 방법만을 사용해서 실제 결혼생활을 하는 기혼의 피험자들에게서 작동되는 효의식의 심층적인 분석에 제한을 받았다. 또한 남녀 피험자를 나누지 않고 분석해서 남녀간의 의식차를 알아내지 못했다. 따라서 이후의 연구에서는 기혼자들과 성인자녀들 둔 노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자식간, 남녀간의 다양한 상황과 맥락에 따른 관계의 역동성을 통한 효의식의 감정, 행동, 인지 등의 다차원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권순형 (1996). 조선시대에도 이혼을 했을까. 한국역사연구회 (편자),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 (pp. 25-36). 서울: 청년사.
- 김경동 (1964). 태도척도에 의한 유교가치관의 측정. 한국사회학 1, 3-24.
- 문옥표 (1996). 가족내 여성지위의 변화. 정신문화연구, 19(2), 59-78.
- 박갑선 (1998). 국민학교 고학년의 노인 공경의식에 관한 연구. 노년학연구논문선집 (pp. 1-56) 서울: 도서출판 거산
- 박병호 (1995). 효윤리의 법규범화와 그 계승 효 사상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집, 223-248.

- 박주 (2000). 조선시대의 효와 여성. 서울: 국학자료원.
- 변화순, 김현주 (1992). 가족의식에 관한 한국과 일본의 비교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서선희 (1998). 한국적 효 개념의 특수성. *한국노년학*, 18(3), 142-154.
- 안호영 (1996). 두 개의 가족원리와 새로운 가족의식의 형성. *정신문화연구*, 19(2), 21-37.
- 윤택림 (1995). 생활속의 일상성과 의미. *한국여성학*, 12(2), 79-117.
- 이광규 (1998). 한국가족의 사회인류학. 서울: 집문당.
- 이광자(1988). 우리나라 친족관계의 지속과 변화에 관한 연구-도시중산층 핵가족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이시형 (1999). 노인에 대한 청소년의 태도 및 부양의식. 서울: 삼성생명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이순구 (1999). 우리여성의 역사. *한국여성연구소 여성사 연구실 (편저)* (pp. 191-224). 서울: 도서출판 청년.
- 장혜경, 김영란 (2000). 전업주부의 심리, 정서적인 안녕과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전길양 (1993). 노모와 성인딸간의 상호작용과 부양기대감. 성신여대 박사학위청구논문.
- 최혜경, 김윤정 (1997). 한국치매노인 부양에서의 스트레스 과정. *한국노년학*, 17(1), 35-50.
- 한겨레 2001년 7월 30일자, 김현주 박사 장남 부부의 현실해부.
- 홍성열 (2001). 사회과학도를 위한 연구방법론. 서울: 시그마프레스.
- Cha, J. H. (1994). Aspect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korea. In U. Kim, H. C. Triandis, C. Kagitcibasi, S. C. Choi. & G. Yoon (Ed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pp. 157-174).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
- Denzin, N. K., & Lincoln, Y. S. (1994).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Hwang, K. K. (1999). Filial piety and loyalty: Two type of social identification in Confucianism.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 163-183.
- Ikkink, K. K. Tilburg, T. V., & Knipscheer, K. C. P. M. (1999). Perceived instrumental support exchanges in relationships between elderly parents and their adult children: normative and structural explan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831-844.
- Miller, B., & Cafasso, L. (1992). Gender differences in caregiving: fact of artifact. *The Gerontologist*, 32(4), 498-507.

A Qualitative Study for Hyo-Shim Psychology of Korean Women

Ji-Young Kim

Sang-Chin Choi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Filial piety has been a cardinal cultural norm institutionaliz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in China, Korea, Japan, and other Asian societies influenced by Confucian culture. In Confucian society, parents control their children strictly and force them to conduct socially appropriate behavior. In Korean society, filial piety is the basis for all other virtues. However,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of Korean society, the consciousness about filial piety and its behaviors is changing in order to adapt to the changes in the family system (i.e., nuclear family) and economic structure. Even though, the Korean young generations (esp. males) would like to support their parents financially and respect them in their mind, they feel less obligation to their parents compared with the past. In contrast with males, most Korean females used to have no time to support and respect their parent after get married. The present study is to investigate Hyo mind of the Korean women as daughters, daughters-in-law, and wives based on representations of high school and undergraduate students living in this era.

Keywords : *filial piety, Hyo mind, Confucianism, filial behaviors, obligation*